



금강반아바라밀경 변상도(1357년 새김·보물 제877호)가 이번 전시회에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나무결 사이 사이

‘한국 고판화展’ 부처님 숨소리 들리는 듯 (4월 3일 까지, 서울 일민미술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을 가진 나라. 인쇄문화에 일찍이 눈을 뜬 우리나라는 특히 목판인쇄를 통해 역사와 예술을 표현해 왔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서(古書)는 주로 목판본으로 제작됐고, 문자든 그림이든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종교에서 교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불교와 목판화의 발달이 그 궤를 같이 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불경 목판본 3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적지나 적지성 보박물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용주사 등 전국 곳곳의 희귀 고판화들을 한데 모은 ‘한국 고판화展’을 4월 3일까지 연다.

이번 고판화전에는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일반에 좀처럼 공개되지 않았던 전주 덕운사 제작 <금강경> 판화변상도(1357년 새김·보물 제877호)가 전시된다. 고려시대에는 대장도감(大藏都監·고려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의 판각업무를 담당하였던 국가기관) 등의 국가 관청에서 불경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방 사찰에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일민미술관 수석큐레이터 김희영 씨는 “불경 앞면에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을 나란히 형상화한 변상도 역시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고려 대장도감에서 제작한 판각으로 조선시대에 찍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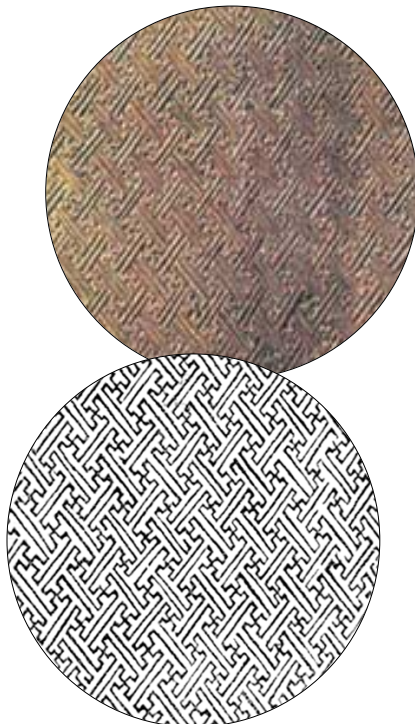
마힐소설경>과 <현우경>(1245년),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화엄경>(1251) 판화 변상도 등도 고려시대 진열대에 올랐다.

조선시대 작품으로는 15~18세기의 직지사 소장품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제작된 <묘법연화경>, <석씨원류>를 비롯해 <부모은중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의 판본이 있다. 1665년 김천 직지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변상도와 1796년 수원 용주사에서 간행한 <부모은중경> 변상도는 목판 및 동판과 함께 진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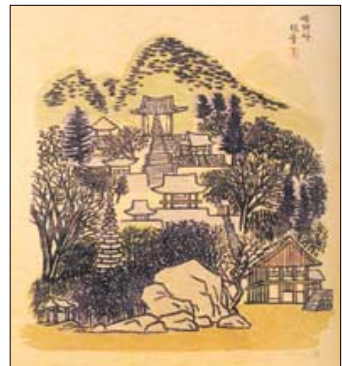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이 같은 불교관련 목판화 이외에도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의 유교 판화도 비롯해 홍선옹 작 ‘쌍계사’, 일본 모리무라 레이 작 ‘Kinkakuji Temple’ 등도 공개된다.

한편, 한국의 고판화전과 함께 열리는 ‘동북아 3국 현대목판화’ 전에서는 불교를 주제로 목판 작업을 벌이는 현대 목판 화가들의 작품도 접할 수 있다. ‘사인암’ ‘쌍계사’ ‘미항사’ 등을 출품한 홍선옹, ‘도피안사전도’를 선보인 류연복 등의 한국 작가 작품과 함께 사찰 그림을 다수 그린 일본의 유명 목판화가 모리무라 레이 등의 판화도 다수 전시돼, 옛 목판화와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02)2020-2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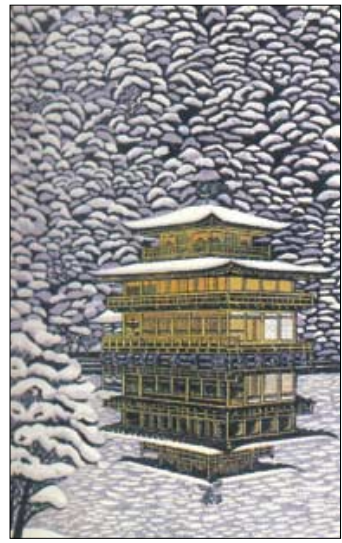
강신재 기자 thaiswh@budhapia.com



만자문판(위)과 만자문판 탁본(아래)(19세기 새김).



홍선옹 작 ‘쌍계사’.



일본 모리무라 레이 작 ‘Kinkakuji Temple’.

■ 이태호 명지대 박물관장이 말하는 목판화 감상포인트

1920년대 한국에서 활동한 독일인 신부 에카르트(Andreas Eckardt)는 ‘한국미술사’(1929)에서 중국이나 일본 미술과 다른 조선 문화의 고유한 유물로 고려 불경과 조선 후기 서적의 목판화를 들고 그 우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무와 칼의 예술인 목판화는 불경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별로 독특한 예술 세계를 드러낸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목판화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유추되는 석판 문양의 다라니가 화엄사 석탑에서 발견되면서, 신라때 불경의 삽화로 그려지는 변상도 판화가 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고려-귀족적 세련미

조선-질박, 민화 보는 듯

용주사 소장 ‘부모은중경’

최고의 회화성 자랑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왕실과 국가의 후원으로 방대한 불경 판각사업이 진행됐기에, 당시 목판화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고려 문화의 귀족적 세련미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붓으로 쓴 사자(寫字)를 개별적으로 제작해 봉헌하는 일이 유행하면서, 불교판화는 사경의 변상도를 방불케하는 정밀함을 특징으로 삼게 된다. 마치 붓으로 그린 것처럼 세밀하고 촘촘한 각선(刻線)이 돋보인다.

11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송 원대 대장경과 구별되는 고려적 요소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목판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북송 판을 바탕으로 제작한 ‘어제비장전’의 경우 힘줄하고 뾰족한 암산(巖山)으로 채워진 중국판과는 달리, 산 능선을 부드럽게 표현해 흡사 고려 고유의 실경산수화처럼 느껴진다.

이후 <금강경>과 <부모은중경> 등 본격적인 삽화 형식의 판화 불서가 등장하면서 경전 내용을 요약한 그림이 더욱 다채로워진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삽화본 <금강경>의 경우 상단에는 경문(經文)의 내용을 시각화한 판화가 배치됐고, 하단에는 경문이 수록돼 있다. 그리고 맨 끝에는 ‘호법선신장도(護法善神將圖)’를 넣어 불경의 장엄성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 못지않게 많은 수의 불경들이 제작됐다. 지방 곳곳의 사찰에서 불경 목판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형태는 다양화되지만, 목판 제작이 민간에서 남발된 까닭에 세련미가 떨어지고 묘사도 무뎠해진다.

조선시대 목판화의 고풍한 형태미와 질박한 선 맛은 조선 민예의 감성과 상통한다. 그러면서도 명·청대의 다색판화를 수용하지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어제비장> (1796년 새김).

않고 청나라의 동판화도 거부했기에 조선시대 목판화는 단색 선묘의 한국미를 오히려 간직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는 최고의 예술성을 구현한 목판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정조 때 왕실에서 제작해 용주사에 하사한 <부모은중경>의 경우 조선시대 불경 판화 가운데 가장 뛰어난 회화성을 드러낸다. 기존의 서술적 표현을 자체 하고 모필 선묘의 맛을 최대한 살린 김홍도 양식의 판화 변상도다. 생생한 판각 솜씨는 그 판 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다.

강신재 기자

불화가 박정자씨 불교파노라마 박물관 건립발원展

불화가 박정자(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 후보)씨가 3월 19~23일 광주 남도 예술회관 1층에서 네 번째 불화 전시회를 연다.

불교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을 발원하며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고려불화의 섬세한 문양을 재현한 ‘삼세 여래 팔대살’이 공개된다. 이외에도 맹화 전체를 순금으로 제작한 ‘미타회상도’ 등 불화 250여점을 선보인다. 불교 파노라마 박물관은 나주 신흥사가 건립 추진하고 있는 불화박물관으로, 박 씨는 이번 전시회를 중심으로 박물관 내부를 꾸밀 예정이다.

박정자씨는 “이번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을 통해 불화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불화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불화 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061)333-4472

강신재 기자

'각종 통증완화' 싹뜸기 개발 출시

싹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싹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 제품 - 싹뜸기, 좌훈기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오행 싹뜸기**
적용할자리 : 종안혈, 신궤혈, 관원혈, 천추혈(2)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 오행 좌훈기**
적용할자리 : 회음혈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 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경년기 장애
- 음양 싹뜸기(무릎관절용)**
적용할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제품 구입시 싹 한달분 무료 증정

모사포유 www.moxa4u.com
D.M.I산업, 대구연의대 인방 비이오 창업부속센터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 (02)521-6353~4
제품구입문의 : (02)598-9834

제3기 영남범음·범패학인모임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범패에 뜻을 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 기본과정 : 시율(목탁, 요령, 태장, 범고) 다루는 법, 도량성, 쇄송, 각단에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육,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대비식, 점안식 등.
● 작법반 : 바라작법, 승무작법 등.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 제3기 개강일** 2005년 3월 17일 (목) 오후 3시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장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 보존회는 초·중·고·대학·평생교육·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 사찰 청년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 國 트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없습니다.

스님? 세상에 제일 고분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서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 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닦아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참지 못하는 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화학회에서 추천한 트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까지도 필히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부러, 잇몸농종, 전염성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